

고마운 사랑

사람은 성격이 좋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한두가지 자기자신에게 특별한것에 대한 까다로운부분이 있는것같다. 나는 음식은 비교적 가리지 않고 다잘먹는것에 반해 내가 입는옷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부분이 분명있다. 대부분 빅세일일때 장만해서 입는 옷들이긴하지만 심플하고 단색이어야하며 세련미가 있어보이는 내게 가장 잘어울리는 옷을 선호한다. 이것이 갖주어지고 난후면 가장중요한것은 입고 나서 편안한가이다. 아무리조건이 다갖추어져도 내가 착용후 편안함이 없으면 그것으로 내옷은 아니다라는 판명이 나는것이다. 이렇게 옷의 편안함은 내옷이 되느냐 안되는냐의 최종 심사기준일정도로 가장 내겐 중요한 조건인것이다. 편안함은 곧 고마움이 되는것이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청소년 자녀문제로 상담을 하면서 만나는 한인가정들의 부부들의 삶을 볼때 참 마음이 찡고 시립다라는 마음이 든다. 부부라는 관계가 저렇게 만들어져 살때 저들의 마음의 행복의 자리는 과연 있을까? 부부라는 이름만있지 관계성이없는, 서로의 어려운마음을 보듬어주는 마음보다는,서로의 고달프고 힘든 삶을 불쌍히여기며 측은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함께 긴세월을 함께 해준 고마움에 마음이 찡하고 애뜻해 살뜰히 여겨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서로의 눈빛과 말소리만으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수있게하는 깊은 우정같은 사랑의 마음보다는, 말하기전에 상대의 얼굴표정과 뒷모습과 어깨만을 보고도 상대의 하루를, 기분을 읽는 서로에대한 민감한 배려보다는 서로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미워하며 남보다 더남같이 살며 이해보다는 풀어야할 오해가 산처럼 쌓여 어디서부터 누가 먼저 풀어야할지 몰라 혼란스레 살아가는 그야말로 이름만이 부부인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것을 보며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는것같아 무언가 꽉막힌 답답함과 슬픔을 느끼는것을 보게된다. 그날도 연로하신 분의 전화로 세상에서 말하는 부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 딸과 사위가 그림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관계는 최악의 이혼직전의 답답한 상황인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들으며 또한번 나의 결혼생활, 자녀 그리고 그것이 있게한 가장 중요한 남편에 대한 존재를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여러가지 생각이 떠오르며 25년을 함께살아온 나의 남편은 내게 어떤 존재인가... 까지 이르자 가슴밑바닥에서부터 고마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남편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단어는 다름아닌 바로 고마움이었다. 가슴떨리는, 가슴을 두근거리게하는 사랑이 아닌 25년이라는 긴시간 동안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던 남편의 여러가지가로 인해 나는 남편에게 “고마운 사랑”이라는 표현외에 더 적절한것이 없는것같았다. 나는 더곰곰히 생각해보았다. 왜 사랑이면 사랑이지 고마운 사랑일까? 너무나 많은 설명이 필요할것같다 그리고 반드시 그사랑앞에 고마운이라는 수식어가 꼭 붙어여할 이유가 내자신을 정직하게들여다볼때 너무나 많이 있음에 나는 더더욱 그 “고마운...” 이란단어가 남편앞에 이렇게 어울릴수있을까에 스스로 감탄해하며 따듯한 생각속에 잠기며 감동에 빠지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앞에서는 가장 공정한것같이 굴면서 남편앞에서는 마치 철없는아이가 아빠에게 어리광 피듯이 무경우로 떼쓰는 나를, 바깥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상한 손길로 빨래나 떨어진 단추도 차분히 달아주지 못했던 나를, 혼자 벌어서는 살기어려운 이민생활에서 정말 우직한 소처럼 성실히 평생을 일하며 불평하나없이 딸셋과 큰딸(바로 철없는 나)을 뒷바라지하며, 가정에서 주부로서 푸근한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은근히 이것저것 까다롭고 깐깐한 나를 마치 철없는 큰딸이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아빠마냥 그렇게 너털웃음으로 웃으며 받아주고 품어주고있는 남편은 나에게 더없는 고마운 사람인것이다. 우리가정이 이렇게 존재할수 있었던 이유중 가장큰이유는 바로 나의 부족함을 귀엽게 봐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장점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존중해주었던 남편의 고마운 마음 때문인것이다. 이런 우리부부도 25년을 살면서 정말 가끔하는 부부 싸움중엔 잠깐이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 존중, 소중함 고마움 이런것들을 마치 전혀 없었던처럼 외면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공통점이 있었다면 우리가 같이한 어려웠던, 행복했던 그시간들로인해 우리는 얼마나 서로에게 편한사람이 되어있는가이다. 잘맞는 옷처럼 그래서 마치 입지않은것처럼 그렇게 편한 ...그래서 고마운 사람인것이다. 그래서 내사람인것이다. 주위에 적지않은 많은 가정이 이혼을 했고 그리고 이혼을

생각하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다는것은 우리모두가 아는것일것이다. 이혼후 새로운 출발에 어떤 기대가 있어 그러는것이아니고 지금현재의 갈등과 아픔을 견디지 못해 그런 궁여지책의 마음으로 그런다는것을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나와 함께 어렵고 힘들었던, 즐겁고 행복했던 그리고 한때는 서로에 대한 애뜻하고 따뜻한 ,그래서 내사람이라는 단어를 서로에게 붙여주었던 그사람이 바로 내 아내, 내 남편이라는 생각을 가져보자, 그리고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고 기억하기보다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작은 장점하나를 먼저보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정말 소중히 생각해주는 그 작고 겸손한 마음이 내안에 있는지 나를 먼저 살펴보는 마음이 있다면 나와함께 해준 그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 되지않을까? 아픔과 갈등을 가진 한인가정의 부부들에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서로에게 고마움이 만들어지는 가정이 되길 두손모아 기도해본다.